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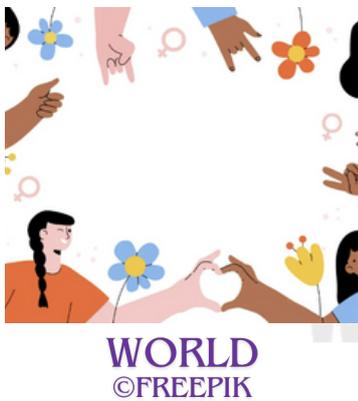
위즈덤 아고라는 해외 한인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2021년부터 활동중인 신문사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거주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더욱 친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고령 운전 제한 정책과 노인 권리 침해

[객원 에디터 8기 이지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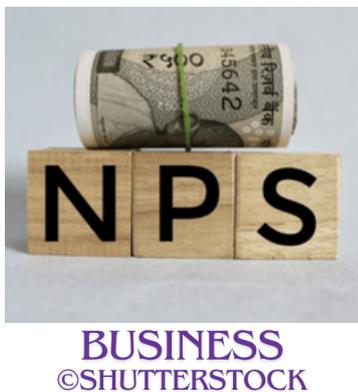
‘시청역 사고’ 같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 제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분분하다. 교통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노인들의 이동 제한, 과연 필요할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논의 개최

[객원 에디터 8기 김나현 기자]

광주에서 열린 제14회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은 ‘물리적 차원을 넘은 시민 공간’의 설계를 논의하여 유의미한 국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반에서 인권 정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차등 인상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향

[객원 에디터 8기 장채원 기자]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불신이 강한 만큼,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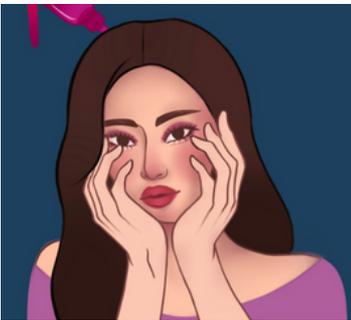


SCIENCE
@OPEN A.I.

식후 밀려오는 졸음, 식곤증이 아닐 수도 있다

[객원 에디터 8기 임지나 기자]

가을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피로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지속적인 졸음을 느낀다면 기면증,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KOREA
@HANA LEE 2008

전 세계를 매혹하는 K-뷰티 열풍

[객원 에디터 8기 최현우 기자]

한국의 뷰티산업은 가격대비 좋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뷰티산업은 앞으로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새로운 생산과 영업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없는 한국의 뷰티산업,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OPINION
@HYEONGJU LEE

딥페이크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객원 에디터 8기 정동현 기자]

딥페이크 기술은 합성 신경망, 자동 인코더, 자연어 처리 등 여러 기술을 발전시키며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페이크 기술은 부정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과학적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COLUMN
@PIXABAY

스파이더맨의 과학: 바이오헬스케어 가능케한 초능력 같은 기술들

[위즈덤 아고라 이채은 기자]

자연의 메커니즘을 모방해 인간의 삶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헬스케어는 인간의 삶을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등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무궁무진한 발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서늘한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10월입니다.🍂
위즈덤 아고라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 유익한 소식들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소시지, 살라미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가공육

CARD NEWS

우리가 즐겨 찾는 소시지, 살라미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가공육

[조은 마케터 & 구예은 기자]

가공육에 있는 방부제와 화학물질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 살라미 같은 가공육이 장기적으로 암, 심장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에서 가공육의 숨겨진 위험을 확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BLOG

[대학소개] 한국 입시 정보 사이트 소개

[박지민 마케터]

국내 대학 입시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위즈덤 아고라가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입시 사이트와 정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에 필요한 포털과 가이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국내 대학 입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

[고야엘은우 마케터 & 우동훈 기자]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이 단순한 도발을 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풍선에 담긴 쓰레기와 화학물질은 물리적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국제 협력과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 아고라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OCTOBER 2024 DISCUSSION

이벤트 부서 8기 장한이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많아진 이유

의료 기술 발전: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옵션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생존의 질과 고통 관리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선택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환자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만성 질환이나 말기 환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관련 법적, 윤리적 논의

현재 한국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악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제정된 '존엄사법'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한국에서의 안락사 논의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 사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는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를 전제로 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 안락사 법제를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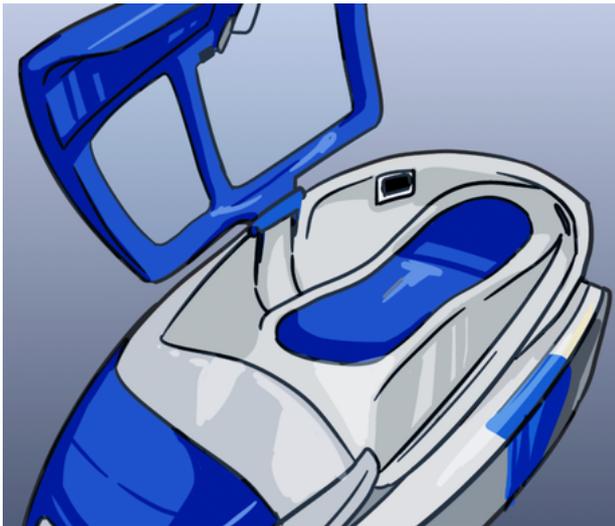


사진 출처: illustration by Rina Kang

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명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로,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황 (식물인간, 아동 등) 에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적 논란이 큽니다.

적극적 안락사

의료진이 직접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방식으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며,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법적으로 이를 허용합니다.

소극적 안락사

인공호흡기나 영양 공급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윤리적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적 허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한국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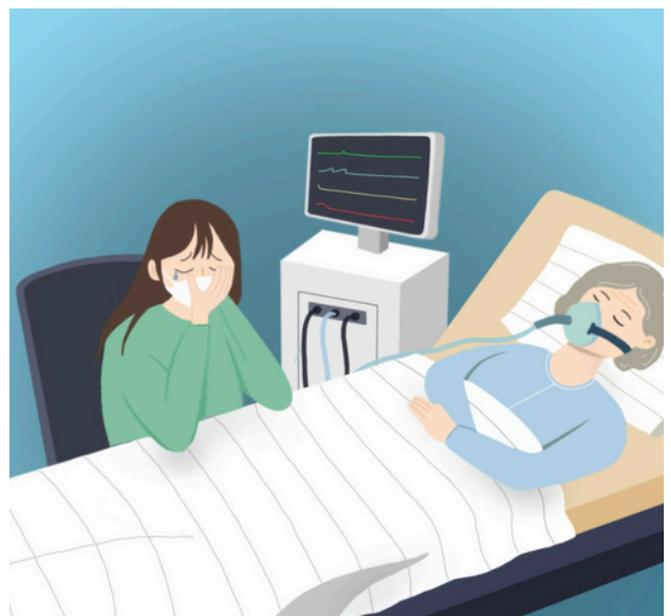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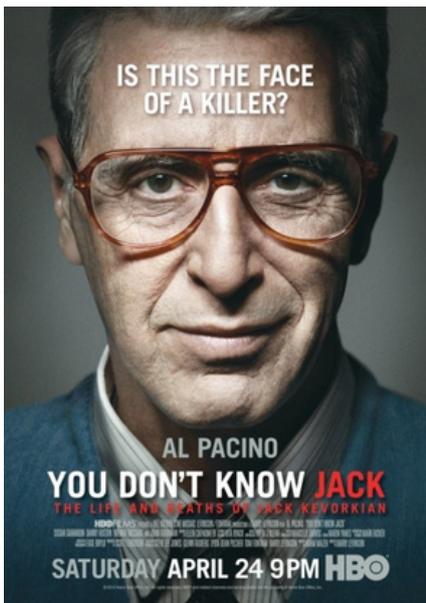


사진 출처: illustration by Hae jin Choi

안락사 관련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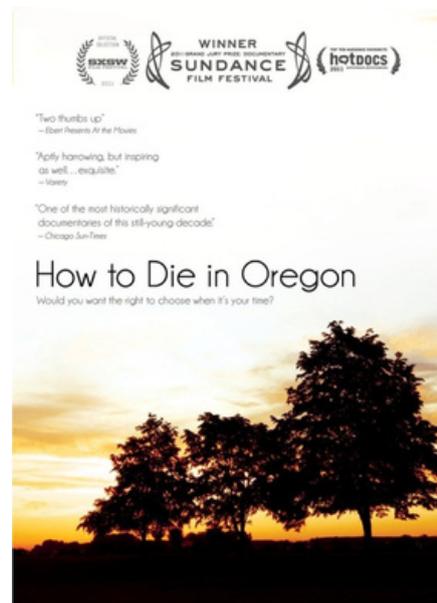
안락사는 아직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락사와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은 안락사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복잡한 감정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안락사의 선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 대신 밑의 작품들을 통해 안락사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 돈 노우 잭>

(You Don't Know Jack, 2016)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와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디언 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환자의 자발적 안락사를 돕는 과정과 언론의 취재열기, 법정 투쟁 등을 다룬 영화로 안락사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 <어떤 죽음>

(How to Die in Oregon, 2011)

오리건 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안락사 제도인 '죽을 권리법'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마감하는 과정을 통해,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탐구하며, 자율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안락한 죽음을 택할 권리

콘텐츠 부서 8기 장수영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선택이라면 죽음 또한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락사를 고려할 만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경우 특히 그렇고요. 제도 규정에 앞서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정하되, '안락한 죽음'의 선택권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

콘텐츠 부서 8기 박지민

안락사 캡슐은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고통없는 죽음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캡슐의 도입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측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죽음을 위한 선택

이벤트 부서 8기 장한이

저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안전망과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 존엄한 자유

이벤트 부서 8기 권나연

안락사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일지 모릅니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며, 삶은 오롯이 개인의 것이기에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주는 슬픔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묻고, 그 선택을 존중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iscussion Question

1. 안락사를 법제화할 경우,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2. 안락사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의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World Population Review (2021). Where Is Euthanasia Legal 2020. [online] worldpopulationreview.com. Available at: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where-is-euthanasia-legal>.

Service, F.N. (2023).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request euthanasia in Belgium. [online] belganewsagency.eu. Available at: <https://www.belganewsagency.eu/an-increasing-number-of-foreigners-request-euthanasia-in-belgium>.

Hurst, S.A. and Mauron, A. (2016). Assisted Suicide in Switzerland: Clarifying Liberties and Claims. *Bioethics*, 31(3), pp.199–208. doi:<https://doi.org/10.1111/bioe.12304>.

PD수첩팀 (2024). [PD수첩] ‘나의 죽음에 관하여’..조력 사망 심층 조명. [online] MBC 뉴스. Available at: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117_36438.html [Accessed 22 Oct. 2024].

백영미 (2023). ‘조력존엄사’ 법안발의 1년...‘웰다잉 vs 자살’ 찬반 여전. [online] 뉴시스. Available at: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12_0002373676 [Accessed 22 Oct. 2024].

백영미 (2022). ‘조력존엄사법’ 발의 한달...국민 82% ‘입법 찬성’(종합). [online] 뉴시스. Available at: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713_0001942115 [Accessed 22 Oct. 2024].

OpenAI DALL-E, 2024. Image generated using DALL-E, October 26. OpenAI.



Visit us, Wisdom Agora



Contact us

Website: wisdomagora.com

Instagram: [@wisdomagora](https://www.instagram.com/wisdomagora)

Email: wisdomagorauae@gmail.com

Youtube: www.youtube.com/@wisdomagora4941



SEPTEMBER 2024

wisdomagora.com / wisdomagorauae@gmail.com